



수인사 득락전(得樂殿) -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

“삼존불상 봉안 종단의 획기적 일대사”



▲수인사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아미타 삼존불 봉안불사에 운집한 대중

불교충지중 포항 수인사(주교 지공)는 11월 27일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해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 내외귀빈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득락전 및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수인사 득락전(得樂殿)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를 경하드립니다”며 “득락전은 이고득락(離苦得樂)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정 종조님 당시 명명한 것으로 부모님이나 조상영식이 생전에 지순을 위해 지은 여러 악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종조님께서는 생전에 재생의세하는 방편이 달라야 한다는 유훈을 남기셨다”며 “과거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아도 되었으나 근기가 다른 현재는 형상을 좋아하기에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으로 불상을 봉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득락전이 도심속에 조성된 것은 바쁜 현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성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식전도불공과 교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리원장은 이와함께 “아미타

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삼존불을 경내에 모시는 일은 종단의 획기적인 일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일대사는 종단의 여러 어른 스승님들과 수인사 주교님을 비롯한 신정회 회장님, 그리고 교도분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시정정사,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가지불사는 2층 득락전 제막 및 비밀가지의개, 육법공양과 3층 서원당에서의 개회사, 발원문, 유가삼십, 종령법어, 봉축사, 만다라 합창단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정회 대구 경북지회 권오남 지회장은 발원문에서 “일심으로 염주 돌려 법계를 두루 보니 비로자나 부처님 광등성품이 아니게신 곳이 없고, 언제나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시니 무명중생들을 영원토록 극락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원했다.

한편 종조 원정 대성사는 당시 본산 총지사 본존 오른쪽 공간에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득락전을, 원편에는 상근기 진언행자가 삼밀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공간인 일묵전(一默殿)을 마련한 바 있다.

종단은 “서원당에 관세음보살의 본심묘묘진언인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고, 별도 공간에 새로운 전각을 건립해 불상을 모시는 것이므로 종단의 교상과 사상에 크게 위배됨이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성사에서 총기 원년인 1972년 준제관음보살상을 조성했던 점을 놓고 보았을때 형상 불이라 해서 충지중의 사교이상(事敎二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 윤우재 기자
(특집화보 10면)



24일 창교절 기념법회 봉행

제2회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도 마련

불교충지중은 오는 24일 전국 각 사원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기념유시문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에서 중생제도를 위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고 충지중을 창종하셨다”며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성사님과 흔들림 없는 중지로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신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모든 교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교도들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충지사에서 열리는 창교절 기념행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대중불사 법요와 동참불사가 진행되며, 어린이 자성학교 영화상영 등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1일 오후 3시 충지사 서원당에서 제2회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도 개최된다.

이날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은 찬불가와 가곡 등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인다.

이와함께 정사, 각자들이 참여하는 혼성합창도 마련된다.

“동해인의 재능, 잠재력 개발”

종립 동해中 동해 어울마당 축제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11월 26일 본교 대운동장과 해오름관 등에서 재능과 개성을 펼쳐 보이고 심신을 단련하는 제5회 동해 어울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충동문회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울마당 축제는 1부 개식사와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2부 투호 놀이, 연날리기, 팽이돌리기, 길놀이 등의 전통놀이로 이어졌다.

이와함께 공예체험을 비롯해 로봇, 다도, 염색, 페이스 페인팅, 과학발명 등의 체험 행사를 가졌다. 오후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교사와 학생 3인 2각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 결승전이 열렸다.

동해중학교 김 남 교장은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예발표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사회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동해인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동해 어울마당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동안 학습과 특별활동을 통해 얻어낸 실력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는 장이 되었으며, 동해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종조법설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법으로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이 확립되고 입교교의(立敎敎義)를 이에 두었다.

8면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논문2

10면 화보 / 포항 수인사 득락전 가지불사

12면 진언행자를 찾아서

기 축 년

충지 38년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충지사 원정기념관에
전시된 종조님 유물사진

Sun	Mon	Tue	Wed	Thurs	Fri	Sat
1 12월 28일 양력 2009년 1월 1일	2 12월 29일	3 12월 30일	4 1월 1일	5 1월 2일	6 1월 3일	7 1월 4일
8 1월 5일	9 1월 6일	10 1월 7일	11 1월 8일	12 1월 9일	13 1월 10일	14 1월 11일
15 1월 12일	16 1월 13일	17 1월 14일	18 1월 15일	19 1월 16일	20 1월 17일	21 1월 18일
22 1월 19일	23 1월 20일	24 1월 21일	25 1월 22일	26 1월 23일	27 1월 24일	28 1월 25일
29 1월 26일	30 1월 27일	31 1월 28일				

충지중 2009년 탁상용 달력이 제작됐다. 원정기념관의 종조 유물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대성사의 창종 정신과 유훈을 기렸다.

충기 37주년 창교절을 맞이하며



효강 종령

오늘(12월 24일)은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한 실천 수행법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자 우리 종단이 개산한 지 3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간난신고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에 의지하여 합심과 단결로써 헤쳐 오면서 흔들림 없는 중지로 오늘의 충지중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기까지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과 선대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충기37년 창교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원정대성사님의 유훈을 되새기며, 제2창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창교절 유시문 중)



사 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가 저문다. 이맘때가 되면 늘 다사다난이란 말이 기계적으로 나오게 된다. 어느 해인들 어렵고 힘들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라는 유독 금년 한 해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고 안쓰럽게 만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세계금융 위기의 중압감 등으로 인한 자살이 유독 많은 해였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 빈곤으로 겪게 되는 사회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는 불안감과 우울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편리함을 제공받았지만 그에 비례하여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외로움이라는 비싼 댓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1953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현대인들을 일러 〈고독한 군중〉이라고 했다. 집단 속에 끼어있으면서도 전혀 소속감이 들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만 들게 되는 심리상태,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만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책에서 리스먼은 이러한 사실들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고독감이 현대인들의 중요한 정신적 병인(病因)의 하나인데, 고독감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 여년 전에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꾸짖으셨다. 수행의 장애요, 욕도원회하는 원인이 바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다.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데서 욕심이 생기고 집심, 원망이 일어나고 경쟁과 질투가 생기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큰 고통만을 잔뜩 쌓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부(富)의 축적과 출세에 있지 않음을 부처님께서는 출가(出家)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다. 정신적 안락, 마음의 평온이 물질에 있지 않음을 설교한 것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경제적 삶을 꾸려나가야지만 최종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불교의 수행으로 선정(禪定)을 이루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안정을 가졌을 때 우리는 바른 삶과 바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일상이 곧 수행이어야 '살아있는 불교'이자 '생명력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마음 수양을 위해 하루 가운데 1%의 시간만이라도 할애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불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민은 그 끝이 없다. 이로 인한 심적 고통과 외로움들은 비켜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에 두어야 한다. 마음의 안정에서 바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바른 수행이 되어야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바른 수행과 마음의 평온이 이어질 때 우리는 현대인들이 갖는 온갖 사회적 병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생활 속의 해탈이고 열반이다. 열심히 빌어서 작은 서원을 성취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삶의 목적이 출세와 부(富)에 있어서는 고통을 겪을 수가 없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진리를 통해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몸소 실천해나갈 때 크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의 수행을 통해 커다란 법열(法悅)을 느꼈을 때 우리는 욕망과 집착, 외로움과 고통이라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알림 ▶ 11일 부산 성화사 특rak전-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 불사를 봉행합니다.

▶ 21일 오후 3시 총지사에서 2회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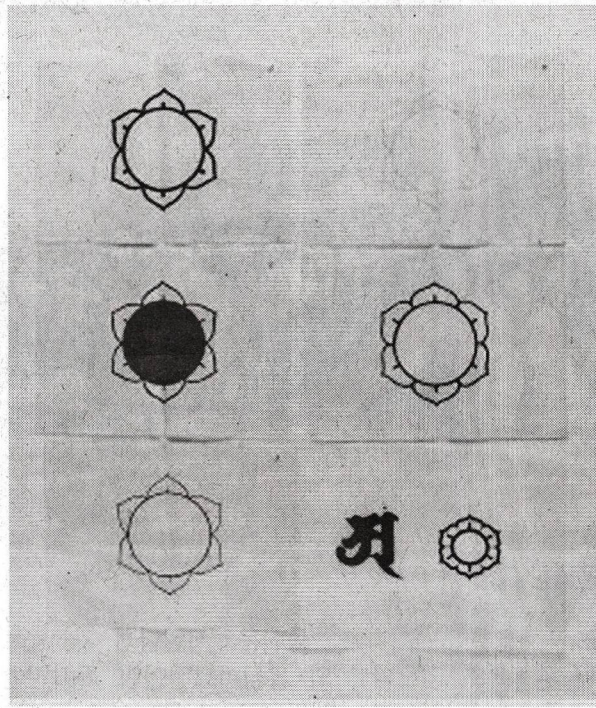
▶ 24일 창교절 기념법회가 서울 총지사 및 전국 각 사원에서 봉행됩니다.

기획연재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⑥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종단의 상징을 육합상(六合相)으로 나타낸다”

지난호에서 '본존과 의식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확립하고 밀교종단의 틀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던 불사였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육합상'의 고안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 중앙엔 원(圓), 바깥은 광선(光線)과 육엽(六葉)



▲육합상 제정 당시 만들어졌던 시안(試案)

종조께서는 종단의 의식이라 할 수 있는 '비밀의계'를 제정하신 후에 대외적으로 종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마련하는 데에 눈을 돌리셨다. 종단의 내실만큼 종단을 알리고 상징화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1972년 9월 29일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종단의 상징물을 고안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총지종 교의(敎義)의 상징이자 종지(宗旨)를 표시하는 동시에 교기(敎旗)와 건물,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뱃지로 사용될 종단의 상징물을 고안하니, 이것이 육합상(六合相)이다. 육합상은 중앙에 둥근 원(圓)을 하고, 원으로부터 6개의 가지광선이 있고, 그 바깥으로 6개의 연꽃 잎을 한 모양이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동시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뜻이요, 또 이 우주의 운행(運行)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므로 법신 비로자나가 곧 원이라는 뜻이요, 만다라를 윤원구족(輪圓具足)으로 표현하며 대일여래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에서 광명을 발하는 뜻으로 표시한 것이다. 외곽의 6엽(六葉)은 불교의 교화(敎化)를 표시하는 동시에 육자진언, 육바라밀, 육합(六合-동서남북과 상하), 육도(六道),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 육대(六太), 육관음(六觀音)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육자진언 중 '마니'는 원(圓)이요, '반례'는 연화(蓮華)이며, 원은 남성, 연화는 여성에 비유된다.

즉 남녀상교·음양원융(陰陽圓融)의 뜻이며 원(圓)은 물질(과학)이요, 연화는 심성(종교)이다. 그런고로 물심불이(物心不二)의 뜻이며, 원은 현상이요 연화는 진리라. 당상즉도 즉사이진(當相即道 卽事理眞) 색심불이(色心不二),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의 뜻이다.」고 하셨다.

◆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의 결정체

이 육합상이 곧 총지종의 교상과 사상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의 원(圓)과 여섯 개의 가지광선이 바로 비로자나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며, 바깥의 여섯 개의 연꽃잎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을 『대일경소』에서는 태양에 비유하여 '대일여래(大日如來)'라 하였다. 원은 태양을 표현한 것이며 태양은 곧 비로자나불을 말한다. 즉 육합상의 중앙에 총지종의 주존(主尊)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또 총지종의 본존(本尊)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도 육합상에 모셔져 있다. 바깥의 여섯 개 연꽃은 육자진언을 나타낸다. 육자진언이 관세음보살의 진언이 아니냐. 연꽃 또한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地物)이다. 여러 면에서 관세음보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은 종단의 교상(敎相)을 담고 있는 내용인 셈이다. 여기에 육엽(六葉)은 종단의 실천수행법인 육바라밀을 의미하고 있다. 이론과 실체가 바로 이 육합상에 녹아 있는 것이다.

총지종의 교리요강(敎理要綱)이 곧 육합상인 것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우리 총지종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모신다」는 교시가 곧



▲사원 건축물의 상징인 원상(圓相)은 육합상에서 유래되었다. 사진은 경주 건화사.

육합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육합상의 문양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육합상에서 유래된 종단의 상징물이 또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원상(圓相)이다. 대개 사원 건물에 세워진 종단의 상징물이다. '둥근 공 모양'이다. 이 원상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자 곧 비로자나불이며 우주(宇宙)를 나타낸다.

총지종의 사원건물의 상징인 원상은 불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선종에서는 깨달음의 대상으로 원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선(禪)의 자의(字意)를 나타낼때 둥근 원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중생의 마음의 본성이 둥글고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이러한 원상(圓相)은 중국 위양종의 혜충(慧忠)으로부터 시작되어 남양(南陽) · 탑원(塔源) · 양산(仰山)에게 이어지면서 활발히 사용되었고 이른바 94개의 원상이 나왔다 한다. 원이 불교에서는 바로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의 수레바퀴'라 말한다. 이를 법륜(法輪)이라 하는데, 수레바퀴는 곧 둥글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 '깨달음' '성불'을 의미한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니 진여원성(眞如圓成)이라 하는 것도 결국 성불(成佛)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둥근 원(圓)자가 들어감은 마땅한 것이다. 원성실성은 '원만, 성취, 진실'을 구족한 것'을 뜻하며 '본래의 성품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이다. 원성(圓成)은 '완성시킨다' '원만성취'의 뜻이고 실성(實性)은 '실다운 성질, 즉 본래의 성품으로 곧 불성(佛性)'이다. 그것이 원(圓)으로 표현된 것이다. 진여원성은 '진여의 완성'의 뜻으로 곧 성불(成佛)을 의미한다. 또 원(圓)은 우주를 담고 있다. 화엄세계의 '법계연기', '원융무애의 세계'이다. 화엄의 세계는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연기해 있는 세계다. 법계연기의 세계요, 상즉상입(相即相入)하여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세계다. 원융무애는 '모든 것이 둥글게 화합하여 서로 방해함이 없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분별과 대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원(圓)의 상징이다. 신라의 의상대사는 '화엄법상계'에서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이라 하였다. '법성이 원융하여 있으므로 두 모습이 없다'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루 연기해 있으므로 두 모습이 없다.'는 것이 원(圓)의 사상이다.

또 원(圓)은 '원만', '완성' '완전히 갖추(具足)'의 뜻이다. 그래서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 한다. 이는 곧 만다라를 의미한다. 원이 곧 만다라인 것이다. 그래서 만다라의 모든 존상(尊像)들은 모두 원(圓), 동그라미 속에 그려져 있다. 즉 원(圓)=성불(成佛)=만다라(曼荼羅)가 등식관계를 나타낸다. 원이 불교 뿐만 아니라 밀교 속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밀교에서 월륜관(月輪觀)이 원상(圓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월륜(月輪)이란 바로 둥근 보름달을 의미한다. 원은 '둥글다'는 의미요 둥글고 가득찬 만월(滿月)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지혜의 완성, 성불의 의미다.

원은 밀교의 수인(手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비로자나불의 법계정인(法界定印), 아미타불의 선정인(禪定印) 등의 손모양은 동그라미를 하고 있다. 그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깨달음, 성불' 등이다. 수행자가 불보살의 손모양수인을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여 반드시 부처가 되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바로 내가 부처'라는 상징이다.

(법령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서 '준제관음보살상을 모신다' 편을 연재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개천사 이복남 11. 12 5,000	기로원 법지원 11. 25 10,000	백월사 이갑진 11. 25 10,000	수인사 공경원 11. 26 16,000	해정사 최영례 11. 14 10,000
개천사 무명씨 11. 19 5,000	단음사 범연지 11. 27 5,000	백월사 박삼순 11. 28 10,000	시법사 환수원 11. 30 10,000	해정사 오혜민 11. 27 10,000
개천사 이회권 11. 25 10,000	만보사 이정순 11. 1 10,000	법천사 시 정 11. 25 10,000	실보사 조순애 11. 19 10,000	해정사 해원정 11. 27 10,000
개천사 경 원 11. 30 10,000	만보사 민순분 11. 14 10,000	법천사 원만원 11. 25 10,000	실보사 송희준 11. 26 10,000	해정사 서 령 11. 27 10,000
개천사 정 법 11. 30 10,000	만보사 이종구 11. 14 5,000	법천사 박말조 11. 25 5,000	실지사 송우섭 11. 10 5,000	화음사 강승훈 11. 28 10,000
관성사 정정희 11. 14 10,000	만보사 정덕순 11. 28 5,000	벽룡사 이희숙 11. 5 10,000	실지사 정우석 11. 13 10,000	화음사 강순란 11. 4 5,000
관성사 정인순 11. 25 10,000	만보사 이현진 11. 30 20,000	벽룡사 원 당 11. 10 10,000	실지사 이화수 11. 19 20,000	흥국사 여순애 11. 17 10,000
관성사 황성녀 11. 30 10,000	만보사 지 정 11. 30 10,000	벽룡사 요심해 11. 10 10,000	운천사 박보경 11. 14 20,000	흥국사 밀공정 11. 17 10,000
관음사 신막심 11. 10 10,000	만보사 승호제 11. 30 10,000	벽룡사 이지영 11. 14 10,000	운천사 정태호 11. 17 5,000	이숙남 11. 11 30,000
기로원 상지화 11. 25 10,000	밀인사 이회원 11. 24 10,000	삼밀사 원 송 11. 7 10,000	자석사 신옥점 11. 4 10,000	노점호 11. 19 20,000
기로원 불멸심 11. 25 10,000	밀인사 이연수 11. 27 10,000	삼밀사 인범계 11. 7 10,000	정각사 변순계 11. 13 5,000	임동수 11. 25 20,000
기로원 법장화 11. 25 10,000	밀인사 이혜성 11. 30 20,000	삼밀사 김수화 11. 13 10,000	정각사 구정희 11. 17 20,000	무명씨 11. 26 10,000
기로원 대자행 11. 25 10,000	밀인사 정정희 11. 30 5,000	선립사 정복지 11. 17 10,000	정각사 김문수 11. 19 10,000	무명씨 11. 27 10,000
기로원 대 관 11. 25 10,000	밀행사 석우성 11. 13 30,000	선립사 심지장 11. 17 10,000	정각사 박수빈 11. 21 10,000	오일록 11. 30 10,000
기로원 총지화 11. 25 10,000	백월사 신운산 11. 14 10,000	수인사 권오남 11. 5 20,000	정각사 윤전자 11. 28 10,000	
기로원 수증원 11. 25 10,000	백월사 류승태 11. 14 10,000	수인사 장영택 11. 6 30,000	정각사 차비희 11. 28 30,000	
기로원 사홍화 11. 25 10,000	백월사 박인철 11. 18 5,000	수인사 이은희 11. 6 20,000	지인사 허성동 11. 14 20,000	
기로원 법수원 11. 25 10,000	백월사 박인국 11. 18 5,000	수인사 김봉기 11. 25 10,000	통리원 지 정 11. 25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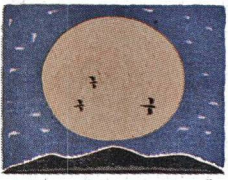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명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서로가 서로를



씨앗속에 열매가 포함되어 있고 열매속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원철 스님(경학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넌 성적이 이게 뭐냐? 풀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파랑새는 마음이 울적해져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파랑새는 다른 집 지붕에 앉아 날개를 쉬었습니다.

를 쉬었습니다.
"여보, 내 나이 마흔인데 당신없이 제대로 되는데 없네."
"아버님, 분같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맛난 칼국수 해드릴게요."
그 집에선 서로의 기운을 분출해 주는 말로 넘쳐났습니다.
파랑새는 마침내 행복이 가득한 그 집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남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줄지 않는 귀한 선물인데도, 혹 인색하게 굴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 김동하(시인)

네 부류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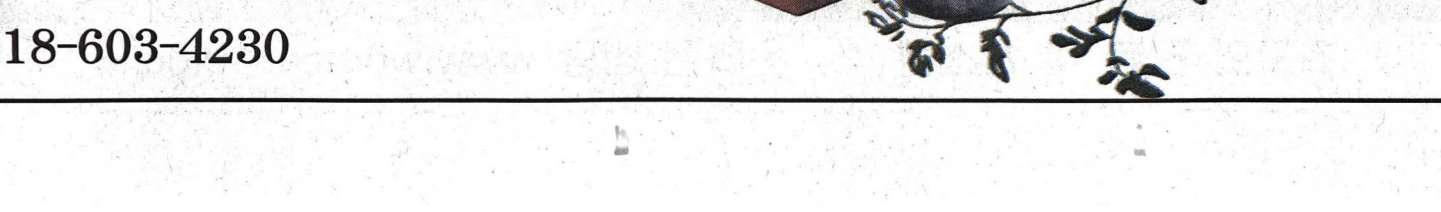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갑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갑니다.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며, 또 어떤 사람은 밝음에서 밝음으로 나아가갑니다.
지금은 비록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나 나쁜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어두운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쁜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간다면 운명은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고 -천수경편 제 34화-



이달의 명상

간택심 버리면
특 트이어 명백하리라



(사진: 최해선)

무상의 도가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잡다 곱다 마음 없으면
특 트이어 명백하리라.
털끝만한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나니
참 나가 나타나려면 순도 역도 두지 말라.
어긋난다 맞는다 시비하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니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생각을 가라 앉힌다 해도 소용이 없다.
허공처럼 원통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는 도다.
인연을 좇지 말고 적별에도 빠지지 않아서
한 가지 그대로만 지니면 헛 것은 스스로 다 하리라.

- 신심명 中 / 승찬대사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만다라의 복지세상 ③**불교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불교사회복지 박람회**

사회복지에서 '복지'의 '복'과 '지'는 모두 복(福)을 의미하며 이는 잘산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단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인 행복을 일컫는 것으로 영어로는 Welfare(Well-being)이며 이는 잘 지낸다는 안녕의 상태, 만족의 상태, 행복의 상태를 나타낸다.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인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과 함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그 이상을 지향하는 실천상태인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에 와서 사회복지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한된 대상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에서 오늘날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나아가서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복지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동시에 사회의 평안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가는 사회복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성 존중의 원리에 의하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 기회는 균등하다는 것으로 능

력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서로가 의지하고 책임을 나누는 공생의 원리에 입각한 상호부조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상부상조 전통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들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사회복지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불교와 사회복지와의 공통점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이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이 고통의 속박에서 해탈하는데 목적을 두며, 사회복지의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불교사회복지란 불교를 주제로 하는 복지활동을 불교정신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실천인 반면, 일반 사회복지란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대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의해 조성된다고 본다. 이는 불교가 환경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의지나 행위를 중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을 중시하고, 주관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사회복지에서는 환경도 중시하지만, 이를 그 사람이 가진 문제의 원인이 되는 관점에

**▲사회복지 박람회 축제**

서 보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열의로 본다면 불교의 의지중시나, 사회복지의 의지중시는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인간존중 정신이나 불교의 생명존중사상, 평등사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인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교와 사회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의 공존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즉, 불교와 사회복지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각기 고유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사회복지로, 사회복지란 일반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라는 공통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각기의 특징을 살려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인정은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교의 인간이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에서의 정신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쉽게 이뤄낼 수 없는 부분으로 불교의 독자성이 될 수 있다. 노인부양에서 노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정신이 공허하다면 노인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불교의 사회복지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은 아마도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원의 역할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신적인 청화나 교화는 교정 복지나 알코올 중독자, 매 맞는 여성(폭력가정) 등을 지원하는 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아동 복지 활동**

로 실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불교와 사회복지의 관점과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와 사회복지간의 일련의 공통점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복지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정신적인 행복이란 불교의 복의 개념과도 같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복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체의 착한 행위와 이러한 선행에 의해서 얻는 행복과 이익을 뜻한다. 결국 그 목적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는 불교에서 자신의 의지를 중시하는 부분과 공통점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행복이 자신의 행위에

충지동의보감**20-30대에 찾아온 갱년기 장애...****조기폐경****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우리는 흔히 갱년기 하면 40-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신체의 노화과정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탈어진 여성미의 기준에 맞추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다이어트와 그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는 20-30대 젊은 갱년기 장애라 일컫는 "조기폐경"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원래 갱년기 장애는 난소의 기능쇠퇴로 인해서 여성의 몸이 정신적, 육체적, 생리적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때부터 임신에 대한 걱정, 반복적인 생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경험도 해보지 못한 20-30대에 불현듯 찾아온 조기폐경은 당사자에게 여성기능의 상실로 인한 허탈감과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임기 여성들의 1%정도가 겪고 있다는 조기폐경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염색체 이상,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는 주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신경과민 등 갱년기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더불어 월경주기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월경이 안 나오는 것이 전형적인 조기폐경의 증상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생리불순으로 여기고 심지어 폐경이 된 후에도 모르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적절한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여성의 생리 기능을 일정시점(대략 50세)까지 유지시켜줌으로써 폐경이후에 올 수 있는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지만 생리가 무배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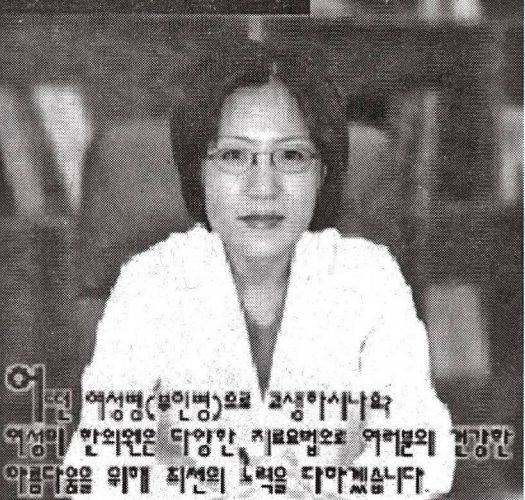
한방에서는 조기폐경의 근원원인을 평소 신장의 기운이 허한데 간과 심, 비장의 기운이 함께 막히면 경혈을 생성, 운하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고 치료의 근본을 자궁내 어혈을 풀고 막힌 기운을 뚫어서 기혈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음양의 밸런스에 맞추어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배란성 생리가 배출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방치료와 더불어 평소의 생활습관, 식습관의 꾸준한 실천도 중요한데 기름지고 음식, 유제품을, 카페인 함유된 제품을 삼가고 콩, 두부, 된장, 신선한 채소, 과일을 매일 섭취하도록 노력하자. 더불어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상체의 열을 내릴 수 있는 빨리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죽비소리**예욕은 고통의 원인이다**

예욕은 진실로 고통의 원인인데 범부는 뉘비편 생각으로 망령되게 즐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운 것으로 알고 미리 끊어 버린다. 예욕을 싫어하지 않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점점 더하게 하는 것과 같다.

(성실론 成實論)

'여성美' 조선휘 원장**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임 자궁어혈 제거

여성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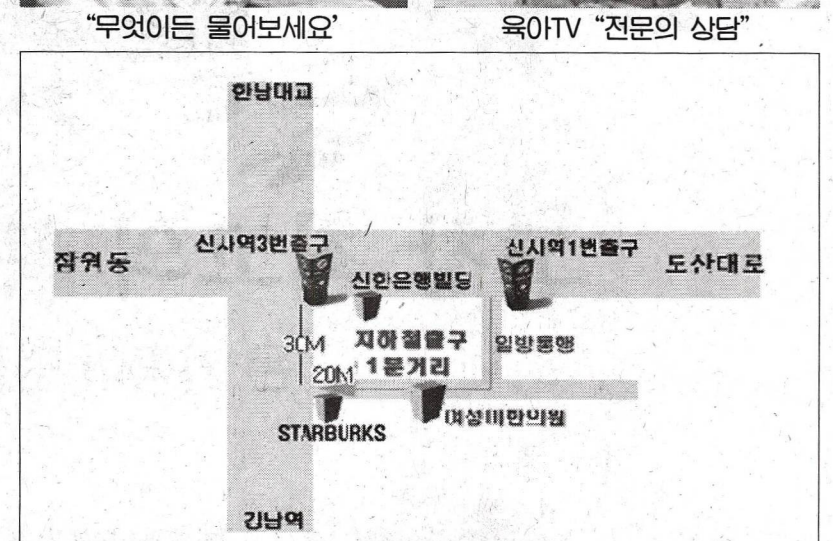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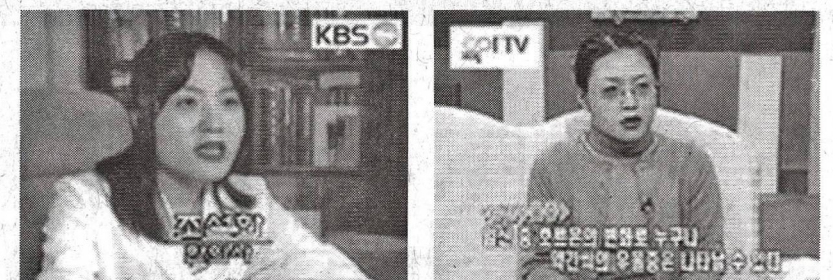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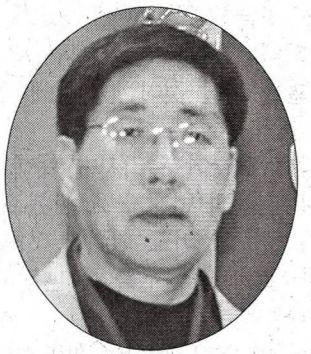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부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안 성

(단음사 주교)

부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을 위해서 오셨는데,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로으신 부처님의 입장에서야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능력이 약한 우리 중생들에게는 쉬운 일, 어려운 일들이 따로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때 부처님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처님만이 가지신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 중생들처럼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짜증난다' 하는 등의 마음을 갖지 않는 분입니다. 기꺼이 해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차별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탁은 다섯가지의 혼탁한 세상을 말하는데, 겁탈, 전락, 번뇌락, 중생락, 명락을 말합니다.

겁탈은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시대가 자꾸 혼탁해지는 것이며,

전락은 좁은 소견들이 난무하고 부정하고 탁한 사상으로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이며, 번뇌락은 사람의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가득하여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이며,

중생락은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인륜도덕을 버리고 나쁜 결과를 두려워 하지 않아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이며,

명락은 중생이 살아가는 데 계속해서 온갖 불치병과 난치병이 끊임없이 일어나 생명을 위협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의 혼탁함이 깊은 세상을 오락약세라고 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진리를 가르치고 믿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온 것은 바로 '깊은 학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의 영역이고 나에게서는 그런 힘이 없다거나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오락약세의 정화는 고사하고 당장 내 앞가림에도 허덕이고 있으니 무엇을 어디에 깊은 신심과 의지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니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날 수 없겠으며,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할 수 있으며, 중생제도를 기꺼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처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만큼은 되었으면 합니다. 속마음을 덮고 있는 혼탁한 생각과 감정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용기와 확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불교신자로서 아무런 효과도 보람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업을 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불가사의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정진'과 '틀림없는 실천'에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찌들어서 구제받기 어려운 중생이라도 육자진언을 일심으로 부르면, 일체

의 업장은 소멸하고 청정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불가사의한 힘이고, 무량한 공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부처님이 해내신 어려운 일의 불가사의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제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생제도요, 끝도 중생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열렬하고 격정하시는 집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고통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아무리 구제하여 주시려고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거듭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혼탁함', '학'에 깊숙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어리석어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것은 욕망과 집착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지 못하다는 것은 성냄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이기심과 위선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과 불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의혹과 불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그 앞길이 점점 어두어지고 어려움 속으로 빠져 들고 맴돕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처럼 바르지 못한 삶

을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고난에 빠져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이 혼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혼탁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믿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지요. 그러나 삼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생활을 계속하고 계실겁니다. 한마디로 애만 태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팔자소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과 행동 속에 그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집착에 휩싸인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 바르지 못한 행위를 '나쁜 업, 악업'이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과 나쁜 업이 우리들의 생활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온통 덮고 있는 욕망과 집착을 밀어내고 나쁜 업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정토종의 '아미타경'에서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는 뜻을 깊이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나라에 태어날 것을 크게 발원하고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지종은 더욱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후를 염송하면, '대승장엄보왕경'에서 무수한 공덕과 불가사의한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미타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마음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화, 평정심, 이러한 것이 중생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더미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영롱하고 화사한 모습은 어디에 비할 데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신부터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남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면 고통과 괴로움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중생제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 승직자나 교도 보살님들은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막중한 사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수양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곧 나를 먼저 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제도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것도 열심히 닦아가면서, 또 여러 중생들을 열심히 제도해나가는 것이 참수행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량광 무량수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법장비구는 이미 성불하여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혹은 이 다음에 성불하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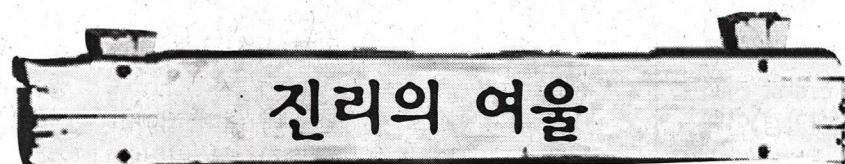
"법장비구는 이미 성불(成佛)하여 지금 서쪽에 계신다.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하는데, 그것은 무량광불(無量光佛) 혹은 무량수불(無量壽佛)이란 뜻이다. 그 나라는 여기에서 십만억 번재에 있고, 그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계를 극락(極樂)이라 한다.

무량수불의 위신력에 찬 광명은 가장 뛰어나, 다른 부처님의 광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만약 중생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가 저절로 사라

지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움에 가득 차 스스로 어진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에서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평안을 얻어,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고 마침내 해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량수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지방의 불국토를 두루 비추어 그 명성이 떨치지 않는 데가 없다. 지금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 성문, 연각들도 한결같이 찬탄하고 있다. 만약 중생들이 그 광명의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면, 소원대로 그 불국토에 태어나 보살과 성문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장차 부처가 되었을 때 지방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로부터 그 몸에 지닌 광명에 대해 칭송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량수불의 광명을 찬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난다, 또 무량수 부처님의 수명

은 한량없이 길어 햇수로 따질 수 없다. 가령 지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그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백천만 겁 동안 헤아린다 할 지라도 무량수불의 수명은 다 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성문이나 보살들의 수도 한량이 없어



진리의 여울

헤아릴 수 없다. 그 불국토는 청정 안온하고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곳이다. 형상을 초월하여 상주 불변한 열반의 경지이다.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천신과 인간들은 지혜가 한량없고 신통이 자재하여 형상이 똑같고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차별된 호칭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일에 수순(隨順)

하기 위해 천신이라거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단정하고 아름다워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생멸이 없는 법신(法身)과 그지없는 즐거운 몸을 가지고 있다. <무량수경 無量壽經>

◇ 바다의 진리

부처님이 사뱃티의 녹야원에서 오백명의 비구들과 같이 계실 때였다. 그때 부처님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젊은이를 만났다. 젊은이가 물었다.

"여래의 법에는 어떤 것이 있기에 비구들이 그 안에서 즐기니까?"

"내게도 여덟 가지 처음 보는 법이 있어 비구들이 그 안에서 즐기고 있다. 첫째, 내 법 안에는 계율이 갖추어져 있어 방만한 행이 없다. 그것은 저 바다처럼 매우 깊고 넓다. 둘째, 세상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지만 내 법 안에는 마치 네 개의 강이 바다에 들어 가면 한맛이 되듯이 도를 배우게 되면 그들은 그전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셋째, 정해진 계율에 따라 차례를 어기지 않는다. 넷째, 내 법은 결국 똑같은 한맛이니 팔정도도 그것이다. 다섯째, 내 법은 갖가지 미묘한 법으로 가득차 있다. 바다에 여러 중생들이 사는 것처럼 비구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즐긴다. 여섯째, 바다에 온갖 보배가 있듯이 내 법에도 온갖 보배가 있다. 일곱째, 내 법 안에는 온갖 중생들이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도를 닦아 열반에 든다. 그러나 내 법에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바다에 여러 강이 들어와도 더하고 덜함

이 없는 것과 같다. 여덟째, 큰 바다 밑에 금모래가 깔려 있듯이 내 법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삼매가 있다. 비구들은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이다."

젊은이는 감탄해 마지않았다.

"거룩하십시오. 부처님 여래의 법 가운데 처음 보는 법들은 바다의 그것보다 백 배 천 배 뛰어나 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인의 여덟 가지 길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차례로 법을 말씀하셨다. 보시와 계율과 천상에 나는 법을 가르치셨고, 탐욕은 더럽고 번뇌는 큰 재앙이므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의심이 풀린 것을 보시고 괴로움(苦)과 그 원인(集)과 없앴(滅)과 없애는 길(道) 등의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

<중일아함 팔난품 增一阿含 八難品>

총기 37주년 창교절 기념 행사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기 37주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마련했사오니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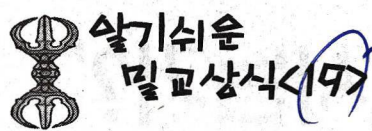
◆ 일시 : 총기 37년 12월 21일(日) 오후 3시

◆ 장소 : 서울 총지사



서울 경인교구 및 지회





밀교의 경전①

불교설화 <29>

“밀교안에서도 경전, 의례 다양한 발전”

밀교는 후기대승불교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되지만 기존의 대승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교리적, 실천적인 면에서 밀교는 독자의 이론과 수행법을 전개하였으며 경전의 분량에 있어서도 방대한 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후기대승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밀교 안에서도 경전이나 의례 등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이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분류법이 필요하다.

밀교경전을 분류하는 데에는 흔히 잡부밀교와 순부밀교로 나누어 설명한다. 잡부밀교경전은 주로 초기밀교의 경전들로서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례와 다라니의 독송공덕에 관한 것들이다. 잡부밀교의 경전은 다라니를 지송함에 의하여 주로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 말하자면 성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병역이나 재난을 소멸한다거나 재산이 많아지기를 소원한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것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때의 대표적 경전으로서는 《다라니집경》《공작명왕경》《십일면관세음경》《불공견색신변진언경》《수호국제주다라니경》 등이 있다.

이러한 잡부경전들이 대승불교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대승불교운동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불보살을 신앙하고 명주나 다라니 등을 외우게 하여 재난을 소멸하고 현실에서의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생활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불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이익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병고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극심하면 여러서는 중생들은 수행이라는 것에 눈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라니나 명주의 신비한 힘을 빌려 이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불교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때에 보시나 지계에 의하여 좋은 곳에 생전할 수 있다고 설득한 생전론과 유사하다. 《반야심경》 가운데에 명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법화경》 가운데에 《다라니품》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잡부밀교경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경부터는 밀교적인 요소가 중심을 이루는 경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에 나타난 경전들로는 《마등가경》《대길의신주경》《대방등무상경》《금광명경》《관불삼매경》《모리만다라주경》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전들은 뒷날 더욱 발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밀교가 갖추어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5,6세기 경에는 불교의 번영에 자극받은 바라문교가 불교의 여러 가지 장점을 흡수하면서 토착의 민간신앙을 받아들여 힌두교로 발전시키면서 대중들의 환영을 다시 받게 되었다. 불교도 그러한 힌두교의 영향에 자극 받아 일반 대중들을 불교로 돌려놓기 위하여 힌두교 혹은 민간에 전해오는 주술적인 의례나 의식을 흡수하였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신들을 끌어 들여 불교의 호법신장으로 삼았다. 천룡팔부나 위타신 같은 것들이 그러한 신들이다. 밀교 경전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의식이나 의례 등에 관한 것이 더욱 정밀해지고 점차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나온 경전이 《십일면관세음주경》《다라니집경》《소실지갈라경》《소바호동자청문경》《불공견색신변진언경》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잡부밀교경전이 진화를 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밀교가 완성된 것은 7세에서 8세기경인데 이때에 나온 경전이 《대일경》과 《금강정경》이다. 밀교는 이 두 가지 경전이 나오므로써 비로소 성불을 지향하는 밀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교리적으로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의 점진적인 성불을 뛰어넘어 즉신성불을 주장하면서 모든 교설의 교주가 대일여래로 되어 이전의 석가모니불이 설주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경전들과는 차별화되었다. 수행법에 있어서도 이전의 잡밀에서는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식(儀式)이나 명상법이 따로 설해져 있었지만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나타남으로써 밀교는 삼밀행이 제대로 갖추어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입으로 다라니나 진언을 외우는 구밀과 함께 몸으로는 인계를 맺는 신밀, 마음으로는 불의 경지에 정신을 통일시켜 삼마지를 추구하는 의밀의 삼밀행에 의하여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즉신성불에 이를 수 있도록 수행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기밀교 이전의 밀교에서는 석가여래, 십일면관음, 천수관음, 공작명왕 등 여러 가지의 불보살과 명왕 등이 등장했지만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다. 각 경전마다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불보살들이 제각기 뛰어난 공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관된 형태로서 정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기밀교의 경전에서는 비로자나불, 즉 대일여래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불보살과 명왕, 천신 등이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체계를 이루면서 조직화되었다.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이다. 이러한 시기의 중기밀교를 순밀이라고 부르며 그 경전이 순부밀교이다.

이러한 잡부와 순부의 구별이외에도 티벳의 부풍은 밀교경전을 소작부(所作部), 행부(行部), 유가부(瑜伽部), 무상유가부(無上瑜伽部)의 넷으로 나누었다. 소작부라는 것은 이른바 잡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라니집경》이 대표적이다. 소작부의 경전은 한문으로 번역된 밀교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행부의 대표적인 경전은 《대일경》인데 실제로 이 부에 해당되는 경전은 많지 않다. 유가부를 대표하는 경전으로서는 《금강정경》과 《이취경》이 있다. 무상유가부에 속하는 것은 주로 후기밀교의 경전들인데 《비밀집화만트라》와 《해바라기만트라》가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 무상유가부의 경전은 다시 ①판관·부(父)판트라 ②반야·모(母)판트라 ③쌍입불이(雙入不二)판트라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회향(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작묵된 시주(施主)의 과보

-제천 장락사(長樂寺) 7층 모전석탑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천의 장락리 일대에도 매미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긴 여름날이 저물고 있었다.

“뚝뚝 뚝뚝...”

아트막한 농가들이 이어지는 길에 노승이 나타났다. 두타행을 하는 탁발승이었다.

“객승에게 시주하시어 인천(人天)의 복을 지으소서.”

나이 이미 환력을 넘었음직한 탁발승이 해거를 농가를 차례로 방문하는데 저마다 궁핍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한 줌 씩의 곡식을 시주하는 모습이 마치 그림과도 같았다. 시주(施主)란 반드시 절을 찾아가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탁발승에게 밥 한 끼 곡식 한 줌을 내는 것도 무량복덕의 인연을 짓는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할진대 시주를 하는 이의 마음은 언제나 청정해야 하고 그 공양물을 받는 사람 역시 청정한 마음으로 시주자의 행복과 소원성취를 불보살님께 빌어 주는 것이었다.

어둠이 내릴 즈음 스님은 마지막 한 집의 문간에 서서 시주를 청했다.

“먹고 살기도 녹초한 판에 왜 시주란 말인가.”

주인은 우락부락한 목자를 앞세워 스님의 목탁소리가 귀찮다는 듯 역정을 냈다. 그래도 단월의 시은을 바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은 그 문간을 지키고 서 있었다.

“객승에게 시주하시어 인천(人天)의 복을 지으소서.”

요지부동의 스님. 그리고 여전히 불평스런 농부. 늙수그레한 그 농부는 마당에 물이라도 뿌릴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스님도 쉬 물러날 것 같지 않았다.

“객승에게 시주하시어 인천(人天)의 복을 지으소서.”

스님이 그렇게 같은 말을 거듭하며 조용히 목탁을 치는 장면을 ‘격정스레 바라보는 사람은 그 집의 며느리였다. 전장(戰場)에 나가 목숨을 잃은 지아비를 위해 한줌의 곡식이라도 시주하고 명복을 빌고 싶은 심정이라 굴뚝 같았지만 노기를 보이는 시아버지로 인해 그저 부엌 쪽문 틈 사이로 스님을 보고만 있는 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는 바가지 하나를 들고 스님께로 다가와 고 말했다.

“아, 드디어 마음을 고쳐 드시고 시주를 하시는구나.”

며느리는 안도의 긴 숨을 내 쉬며 지아비의 명복과 시아버지의 무명장수를 빌었다. 그런데 순간 스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전 곡식이 아니라 모래가 아니오. 탁발승에게 시주는 못해도 좋으나 이렇게 삼보전에 악업을 지어 그 화를 어찌 면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노스님의 목소리는 찡찡 찡찡 했다. 그러나 시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대꾸를 했다.

“중이 되어 수도를 한담시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곡식이나 빌어 가는 터에, 다 저문 저저택에 남의 집 대문을

지키고 서서 어찌자는 거냐.”

시아버지는 모래를 한 바가지 퍼다가 스님의 바람에 쏟아 부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순간 황당하고 무서운 생각 뿐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두 어른이 옥신각신 하는 사이 며느리는 재빨리 뒤주에서 쌀 한 바가지를 꺼냈다.

“스님, 저희 아버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황’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후 스님께 달려가 용서를 빌었다. 스님은 언제 화를 냈느냐는 듯 인자한 모습으로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무 관세음보살. 부인의 정성이 시아버지의 불량한 마음을 고쳐주길 바라지만 이미 그 업보는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소이다. 부인, 오늘밤 이 집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시오.”

노스님은 표표히 사라졌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황당스런 일 때문에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듯 며느리는 한동안 마당가에 서 있었다. 왜 이 집을 피하라는 것인지도 알 길이 없거니와 지아비를 잃고 늙으신 시아버

님께 하늘이 울부짖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마 시아버지가 스님을 해꼬지 하여 하늘이 큰 벌을 내릴 것인가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밤새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이어졌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 했고 물통의 물을 쏟아 붓듯이 비도 내렸다. 사람들은 누구도 문을 열어 볼 엄두를 못 내채 그날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날 아침, 세상은 과연 변해 있었다.

“아니, 밤 사이 댕 타이 저렇게 솟아났는가. 하늘의 조화롭다.”

“그런데 저 곳은 심술꾼은 노인네가 살던 집터가 아닌가. 집은 없어지고 탑이 하나 생겼네. 그러,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구먼.”

“천지가 개벽을 했어. 밤새 벼락치고 천둥 치더니 저런 조화를 부렸구나.”

“그런데 탑 앞에 돌덩어리는 또 무엇인가. 마치 그 집 며느리의 모양새를 빼닮아 있으니 이 또한 무슨 조화속이란 말인가.”

“탑 옆에 깊은 못도 생겼어. 어제 밤에 내린 비가 다 저 연못으로 고인 듯 하군. 마을 냇물은 전혀 불어나지 않았잖아.”

사람들은 날이 밝아 오는 순간부터 술렁거렸다.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하늘이 심술 꾀은 노인에게 벌을 준 것이라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전날 해거를 무렵 그 노인이 스님에게 모래를 퍼다 준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탑이 솟아오르고 집 터와 시아버지 그리고 며느리가 사라져 버린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탑과 함께 생겨난 연못은 깊고 맑았다. 수초도 없고 물고기도 살지 않을 듯한 맑은 못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못에는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음이 발견됐다. 마을의 한 아이가 연못을 들여다 보며 붕어들을 이리저리 쫓아 다니며 놀기를 좋아 했는데 아이는 어느날 꿈속에서 붕어를 만났다.

“아니, 너희들은 연못 속 붕어가 아니냐.”

“야야, 우리는 본래 붕어가 아니었다. 지난 날 갑자기 솟아 오른 탑이 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심술쟁이 할아버지 말이지.”

“그래, 나는 그 노인이고 이 쪽은 며느리이다. 탑이 솟아 오르면 그날 밤 우리는 죽었다. 시주 온 스님에게 해꼬지 했던 과보를 받은 거란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에게 시주의 은공이 무량함을 알려주고 다시는 우리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 이 일을 알려야 한다.”

아이의 그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으나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형이 그 붕어를 잡아 먹겠다고 버트더니 어느날 정말 잡아 먹고 말았는데 그날 밤 아이의 형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연못과 탑과 붕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시주의 공덕이 큰 만큼 잘못된 시주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심일화



삽화 : 정윤지

버지를 봉양하며 살아 온 자신이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며느리는 스님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을 ‘포악스런 시아버지와 살지 말고 어디 좋은 흔처라도 만나 새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거니와 집을 나갈 수는 더욱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소나기가 오려나. 날도 덥고 논 물도 말라 가는데 시원하게 한 줄기 쏟아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

시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나기를 반겼다. 그러나 구름이 몰려드는 기세가 한줄기의 소나기를 위함이 아닌 것 같았다. 며느리는 스님이 남기고 간 말이 다시 생각나 조금씩 불안해졌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도 없는 일이었다.

“우르르 뿜, 우르르르...”

검은 구름이 두텁게 내리쬔던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번쩍번쩍 번개도 요란했다. 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 천지가 개벽을 하는 듯한 굉음에 문을 열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사

어르신은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총지중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주소 :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 02)3452-7485 (016-651-8053)

우리들의 이야기

“단아한 화폭에 포근함 느껴”

- 간송 미술관 조선서화대전 관람기

어린 아이와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나들이였다.

성북동 산자락에 있는 간송 미술관을 찾은 시월 중순,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우산 아래 꼬불꼬불 길게 줄지어 서있는 관람객들은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림도 느긋하게 음미하며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다. 미술관 관람이 그리 사치스럽지도 않고, 조금만 게으름을 떨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삶인 것을 이런 저런 핑계로 왜 자주 못하고 사는지... 아마도 그 날은 시간에 널리 알려진 간송 미술관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이벤트가 나를 유혹했던 것 같다.

나의 화창 시절에는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특히 서양화가의 추상화는



화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림 속으로 아무리 들어가려 하여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에도 동양화의 단아한 화폭에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이제, 그림



을 전공하고 있는 아이 옆에서 오랫동안 많은 그림을 보아와서 그려진, 좋은 그림을 대할 때면 물결이 잔 바람에 동요하듯이 마음 속에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 살며시 전달되는 것을 느낀다.

이번에 전시된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바상정행'과 '해원 신윤복

의 '미인도', '개변가화', '극유청장', '단오풍정', '월하정인' 같은 작품은 그들의 화폭 속에 인간과 자연을 너무나 잘 조화시켜서 그냥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넉넉함이란! 그림 앞에 서 있는 나는 한국인의 혼을 중요시 하여 우리의 그림을 전시하신 간송 전형필 선생의 철학을 엿보게 되어 마음이 더욱 풍요로웠다.

미술관에서의 또 다른 커다란 즐거움은 고운 단풍의 뜰에서 묵묵히 미술관을 향하여 수호계주 진언을 관하시는데 한 부처님을 본 것이었다. 반가운 나머지 사진을 담아 올린다.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의 머리 속에는 언제부터 그 부처님은 그리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우리와 나라를 보살피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맴돌았다.

-백지순(충지사)

충지문예

종합병원



박익진
동해중 1-4반

온 몸이 아프다가도 할머니의 “아들, 화 풀어.”
“내 강새이 많이 아프냐?” 사과에 눈 녹듯 사라지고
한 마디에 한결 좋아지고
두렵고 자신 없다가도 아빠의
힘들고 지치다가도 동생의 “넌 할 수 있어.”
“오빠, 힘내.” 격려에 자신감이 넘친다.
응원에 힘이 샘솟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화내고 억울한 마음도 엄마의 우리 가족은 종합병원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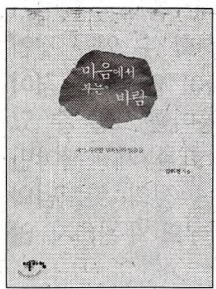
서로를 사랑하고

겨울에는 앙상했던 나무들이 정직한 자연처럼 사람들
봄이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피고 꽃도 피고 서로를 사랑하고
매달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풍요롭게 해주네. - 제애덕(충지사)

이달의 추천도서

마음에서 부는 바람

김의정/ 이문아침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온 저자가 스

트레스와 온갖 번뇌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나누어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가 사랑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선별하여 펴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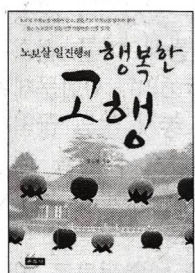
어려운 경전 구절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고, 여기에 자신의 경험과 역대 큰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덧붙였다.

혼돈의 세상에서 ‘참나’를 찾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 책을 읽으면 온갖 탐욕과 고뇌가 눈 녹듯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고행

일진행/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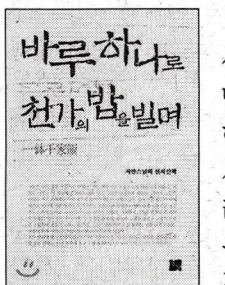
이 책은 노보살 일진행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간간히 써 놓았던 삶의 기록이자 수행생활의 자취이다.

그때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쓴 글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다소 투박하고 비속비속한 내용도 있으나, 한편으로 노보살의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바루 하나로

한가의 밤을 밝여

지안스님/ 계창



지안스님의 선사산책. 깨달음을 추구한 선사들의 시 뿐만 아니라, 당대의 유명한 시도 곁들여 수록

하였다. 한시의 음과 풀이,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지안스님의 풀이와 시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안연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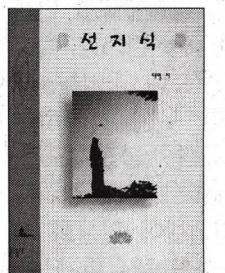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2005년 가을부터 승보종찰 송광사 사보에 실은 글들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글을 쓰면서 저자 자신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과 왜곡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풀어 제시하였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식

대명스님/ 단암사



우리는 전통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과거 무수한 세월 속에서 현철

들에 의해 깊이 통찰된 가치들이 오히려 감성과 이기심에 영합한 현대적 미신들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왜곡되어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는 가치 혼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란된 가치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삶과 관계가 더욱 더 힘들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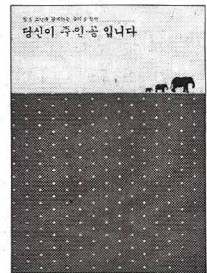
그에 부분적이나마 관점과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과 종교 등 제반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치 혼란을 막고 참다운 길을 열어 뿌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도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

이 글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에 모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시대 이전의 기존가치들을 정리한 성현들의 모범에 조금이라도 부합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된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해져 붓대의 지순했던 삶이 깊이 탐구되기를 바라고 모든 현철들이 오늘에 밝게 재해석되어 지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계기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명 스님의 산사이야기(<http://cafe.naver.com/borisu.cafe>)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스님 /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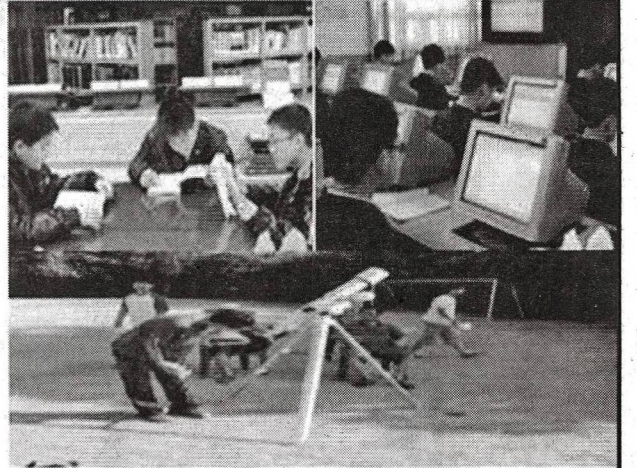
월호 스님의 참선 입문서. 저자는 참선의 구체적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생생한 체험담을 곁

들여 설명하며, 참선은 어렵다, 힘들다는 선입견을 깨뜨려준다.

이 책의 본문은 총 다섯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으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참선 교안(敎案)을 다루었고, 두 번째 장에서는 근세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敬虛)의 참선곡을 월호 스님의 열린 안목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월호 스님의 선방 체험 가운데 일부를 적고 있으며, 네 번째 장에서는 불교방송「참선 백문백답」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애청자들과 주고 받은 문답을 옮겨 담았다.



동해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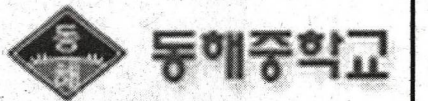
<http://www.psdonghae.ms.kr/>

동해중학교는 1967.3.25 학교법인으로 발족하여 현재 반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창조 협동 경애”의 교훈아래 친구들간의 우정을 다지며 학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해인은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상 정립과 창조적인 정신을 지닌 미래 지도자로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중학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에게는 ‘꿈과 사랑을 주는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화(校花): 장미]

그윽한 향기와 크고 아름다운 꽃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을 뜻하는 가시까지 걸쳐 있어 단연 꽃 중의 왕입니다. 만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고상한 인품을 지니온 우아한 이 꽃은 바로 앞날의 존경 받는 지도자 정신을 지녔습니다. 우리도 크고 아름답고 향기를 지니자 이 나라의 충성스런 지도자가 됩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8-25 동해중학교 TEL) 교무실:051-555-4456~8 행정실:556-0281~2 급식실:556-0283 FAX) 051-553-9234

열린 불교를 위하여

화 령 |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장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것은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때에 가능하다.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신을 버리고 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갈고 닦을 때에 가능해 지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여도 공업을 짊어진 이 사회가 안녕하지 못하면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깨달음을 이루신 후 세간으로 돌아와 국왕, 대신으로부터 장자, 천민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의 무지를 타파하는 데에 힘을 쏟으셨다.

과거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출가 승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모든 경전이 공개되어 있고 이류 해아릴 수 없는 많은 불교 안내서적들이 과거의 수많은 스승들을 대신하고 있다. 스승과 스승 사이로 이어지던 법의 계승도 이제는 공개된 활자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지 모든 경전을 마음대로 구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서 역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단지 자기보다 앞선 선지식이 있다면 더욱 빠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시대야 말로 출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도 2500년 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불교의 진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성불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추구해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교의 인과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당장 실천되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담배에 습관이 되어 괴로워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 버리면 그 순간 담배로부터 해탈되는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술에서 해탈되는 것이고 도박에서 해탈되는 것이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

르침을 듣고 질투심을 여의게 되면 그는 질투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해탈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지고한 최상의 성불을 바라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 그리고 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성불에 다가가는 것이 된다. 마음의 제어에 의하여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맛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평화가 이웃에게 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국토의 건설이며 불자들의 사명이다.

대중들과의 소통을 뒤로 한 채 고답적인 교리만 늘어놓으며 사회의 부조리에 눈 돌리고 인간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열반이며 해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출가의 의미가 퇴색한 지금 출가만이 성불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 불교의 미래는 밝지 않다. 모든 경전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훌륭한 지침서들이 고승대덕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굳이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성불에 이르는 길을 열어가 수 있다. 아울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이웃에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리심을 길러 나갈 수 있다.

출가 승단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고고함을 유지하다가 현실사회와 접촉했을 때 소통의 길이 막혀버리고 현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상구보리는 이루어지지 모르지만 화하중생이

라는 책무는 다하지 못하고 신시를 아끼지 않은 재가신자들에게 큰 빛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큰길을 갈 때는 보살이지만 버스를 탈 때는 중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처럼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듯 싶다가도 대중들과 함께 하는 순간 도심(道心)은 어리둥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세속의 더러운 속에서 연꽃을 피어 올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성불의 계단을 마련하셨다. 누구나 올라 갈 수 있는 성불의

계단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사다리를 놓으셨다. 우리는 자기의 키 높이에 맞추어 거기서부터 성불의 첫걸음을 내디디면 된다.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제 불교는 어느 한 집단의 전유물이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출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불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함께 손잡고 걸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불교, 세속 가운데에서 민중들과 함께 즐겨

위하고 괴로워하면서 성불을 향해 가는 그러한 불교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느껴 볼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불교라야 한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주인공은 바로 재가불자 여러분들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아니라 연꽃을 피우는 진흙 그 자체이기기를 희망하는 재가불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 갈 것이다.

싱가폴에서의 대승불교의 미래 기독교 신자 가족의 삶 vs 불자 가족의 삶

니타 심(Nita Sim Geok Hoon)

싱가폴의 기독교 신자는 가족 활동으로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갑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셈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 인가를 받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기독교 학교에 맡깁니다.

반면 불교 초등학교는 두 개, 중학교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SBF에서 설립한 마하보디 초등학교가 관할은 학교로 인식되며 학부모들이 줄을 섭니다. 반영 불교 중학교는 학력 부진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총명한 마하보디 초등학교 학생도 불교 중학교엔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이것이 악순환 고리입니다.

불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굳이 절에 데리고 가려 하지도 않죠. 반면 기독교는 전도의 역사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같은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기독교 부모의 아이들이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되는 반면, 불자 부모들의 이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불자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정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강화를 수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 대한 초라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설득하지 못하겠죠.

삶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자들은 사회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현재 교육수준도 높고, 서구 영향도 많이 받았으며 전통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서는 것이 시급합니다.

젊은이들은 독송을 시간낭비이며 품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2시간 걸리는 독경은 아마도 한 시간 정도만에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양식으로 명상을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절에서의 명상을 젊은이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상을 통해 가르침도 줄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맞게 바꾸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젊은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도 불교는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 불교가 융성해 지기 위해서는 다음세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중국어 경들과 책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불법 강의도 활발해져야 합니다. 대승 불교가 영어로 많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행해져야 합니다.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전도에서 배울게 많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수세기 전에 번역되었고 기독교가 대중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좋은 삶든, 서양인들의 종교는 권력에도 쉽게 영향했습니다. 불교가 서양에 잘 전파되면 많은 불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다시 '싱가폴'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양인들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젊은이는 사회의 기동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의식과 예법을 없앤다면 불교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교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설 때만이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은덕이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불교라는 경이로운 종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2500년 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불교의 재가운동 생활인으로서의 수행과 회향

박광서 | 서강대 교수

한국불교는 현대사회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종교의 본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다. 불교가 그동안 교육을 등한시해 왔고 사회로 열린 불사(佛事)를 외면해 온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국불교의 재가운동은 포교, 신행, 교단개혁, 호법운동, 사회봉사, 사회개혁 등 5대 지표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와 실천운동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참여불교의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에는 교단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교적 세계관으로 불교를 이끌어 가는 데 재가불교운동의 본질적 의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지도자들에게 불교가 단지 개인적 신앙이나 수행의 취향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개선하려고 나아가 인류문명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명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한국불교가 이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기 전에 스스로의 현주소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민주화·투명화 사회로 개혁되어 가는 시대흐름을 읽는 의식도 없었고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능력도 부족했다. 정화불사라는 깃발 아래 폭력유입·재산망실·교육부재·지도력 상실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다. 아무데도 없다(nowhere)는 '부정과 절망'을 지금 여기(now here)라는 '긍정과 희망'으로 바꾸려는 큰 원력과 구체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미국민의 3%밖에 안 되는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와 전통문화를 지켜가면서 미국이란 초강국을 움켜쥐는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25%가 불자인 한국 땅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재가불자들은 생활인의, 생활인에 의한, 생활불교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욕보다 공익을,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 걱정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지도자, 원력보살을 배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자기성찰이 일상화되고 보시와 봉사가 체질화되며, 사회책임의 의식화 하고 청정·자유·평등·인권·생명·평화·문화 지킴이이자 '불교적 시각'으로 지치거나 싫증남 없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줄

투명화 사회로 개혁되어 가는 시대흐름을 읽는 의식도 없었고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능력도 부족했다. 정화불사라는 깃발 아래 폭력유입·재산망실·교육부재·지도력 상실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다. 아무데도 없다(nowhere)는 '부정과 절망'을 지금 여기(now here)라는 '긍정과 희망'으로 바꾸려는 큰 원력과 구체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미국민의 3%밖에 안 되는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와 전통문화를 지켜가면서 미국이란 초강국을 움켜쥐는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25%가 불자인 한국 땅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재가불자들은 생활인의, 생활인에 의한, 생활불교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욕보다 공익을,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 걱정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지도자, 원력보살을 배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자기성찰이 일상화되고 보시와 봉사가 체질화되며, 사회책임의 의식화 하고 청정·자유·평등·인권·생명·평화·문화 지킴이이자 '불교적 시각'으로 지치거나 싫증남 없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줄

보살'을 길러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사회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더 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에 갇혀 있거나 경전 속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르침은 행동이 따를 때 확신을 줄 수 있고 더욱 빛나는 법이다. 실천 없는 말은 향기 없는 꽃과 같아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정치보살·경제보살·통일보살·인권보살·환경보살·복지보살·문화보살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개인의 수행을 중시하되 사회적 실천, 즉 중생이라는 거울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는 거울을 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화두를 놓지 않고 끊임 없이 불교적 사유로 대안을 내놓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한다.

불교계가 교단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가불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프랑스의 시인·수필가·비평가였던 폴 발레리(Paul Valéry, 1871~1945)의 스스로 경책하는 문구가 새롭게 다가온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교계소식

어 청장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죄”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예방

어 청장은 11월17일 오후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찰 일로 인해 2천만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법등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각종 단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어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지관스님은 “불교계가 종교편향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이 총무원장 차량을 검문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가 근자에 들어 드러나게 표출됐기 때문”이라며 “(어 청장이) 동화사까지 내려왔는데 만나보지 못해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 모두 없던 일로 하고 편안하게 업무에 충실하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각 종단 대표들에게 종교편향과 관련해 사과했다.

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동화사를 간 것은 진심어린 마음이었다”며 “동화사에서는 신도들이 싸늘한 반응이

었는데 오늘 조계사 대응전을 참배하니 신도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관스님은 “동화사에 오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재차 말했다. 어 청장은 지난 9월10일 대구 동화사를 불시에 찾아가 사과하려다 사부대중의 항의에 막혀 실패하고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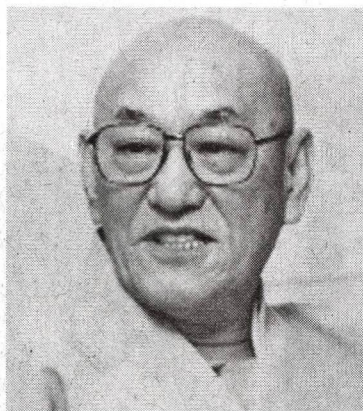
어 청장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경찰도 종교문제로 오해가 없도록 세 차례 특별지시를 내렸고 경찰학교 등 교육기관에도 기본 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사과를)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의 예방을 마친 후, 포교원장 해충스님을 찾아갔다. 조계종 각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충스님은 “(어 청장)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편향 없는 정책 수행과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발휘된 것”이라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27 범불교대회에서 불교계가 선언한 4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및 관련자 문책’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포교대상에 능가스님

공로상 혜자·각현스님 백창기 양성홍 씨



능가스님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해충스님)은 18일 제20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대상(종정상)에는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스님,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과 안성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과 포교사단 양성홍 명예단장 등 4명이 각각 선정됐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진오스님(사회포교대문사 주지), 법농스님(사회포교면목동 방과후각사 주지), 보림스님(사회포교보문산원주지), 지상스님(계충포교신흥사 포교국장), 김상래(한송)군승법사(계충포교|군종특별교구), 조당호(사회포교|평택노

인복지관장), 이인자(사회포교|여성개발원 고문), 김주환(매체포교사)동련 운영위원, 김영미(계충포교|전국산악인연합회 이사), 이영채(계충포교|부산 파라미타협회 임원), 전완중(계충포교|해인사수련동문회장) 등 12명이 선정됐다.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능가스님은 1950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 주지, 세계불교대회 회

장 등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능가스님은 특히 삼보불교재단을 설립, 불우 이웃 돕기활동을 벌여왔으며 법보신문을 전개, 매년 6만부씩 이상의 불교성전을 각계각층에 무료로 배포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

최명준 전무 임명



불교방송 전무가 11월 21일자로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에 임명됐다.

최명준 신임 사장직무대행

은 194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 군종법사로 임관해 제 1군 사령부 군승단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환경연대 감사를 거쳐 월간 <불교와 문화> 편집인으로 일했으며, 1991년 대한불교교정헌원에 몸을 담은 이후 1997년부터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2월부터 불교방송 전무로 재직해왔다.

11월 25일, 군승파견 40주년 맞아

‘군승의 날’ 행사 성대히 개최



◇40주년 군승의 날 기념사진

군승 파견 40주년을 맞는 올해 군승의 날 행사가 11월 25일 성대히 개최됐다. 4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동안 군포교사를 정리한 <군불교사> 봉정식을 비롯 처

음으로 마련한 군승 통일가사를 봉정하는 의식도 열렸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군종교구 원광사에서 전 군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군승회의에서 시작됐다. 군승회의에서는 올해 사업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회의에 앞서 오전 8시30분부터 통일가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통일가사는 종단의례 방침에 따라 군종교구가 일괄제작한 가사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법당에서 순직 군승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오후 1시부터 백상홀에서 군승회의를 개최했다.

교구장 스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군 업무보고, 2008년도 사업성과 분석,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설명회, 안건 토의 순으로 오후4시까지 진행됐다.

비판하기도 한다. 자연 속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는 즐거움과 여유로운 일상도 담겨 있다.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단순하고 청빈한 삶의 실천가인 법정스님은 출가 이후 생의 대부분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곤 한 달에 한 번 쓰는 짧은 산문 한 편. 그 글은 세상과 스님을 이어 주는 끈이었다. 그 글에서 어떤 이는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홀로 섰으며, 어떤 이는 용서할 힘을 얻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화두로 삼았고, 어떤 이는 상처를 씻었다. 현대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지닌 법정 스님의 글에는 한 그루 청정한 나무와도 같은 기백과 간소한 삶과 침묵에서 우러나온 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 있다.

나그네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삶의 무소유를 강조하는 한편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는 과속 문화나 생태에 무관심한 개발주의 등을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법정스님 4년만에 산문집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법정스님이 4년 반 만에 신작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문학의 숲)를 펴냈다. 2004년 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거거하며 집필한 글을 모은 것이다.

지난해 겨울 호흡기 질환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수술을 받고 병상에 머물렀던 스님은 노년의 아름다움과 나이듦의 의미, 생로병사의 애환을 순간순간 뜻있는 삶으로 승화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병상에서 줄곧 생각한 일인데 생로병사란 순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병상에서 배우다’)

나그네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삶의 무소유를 강조하는 한편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는 과속 문화나 생태에 무관심한 개발주의 등을

생활상식

◀ 현관에 차 찌꺼기를 뿌려두면 먼지가 나지 않는다

현관에 축축한 차 찌꺼기를 뿌린 다음 빗자루로 쓸어내면 차 찌꺼기가 먼지와 작은 오물을 흡수하여 날리지도 않고 냄새도 사라진다. 신발장에 차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탈취제 역할을 한다.

◀ 창 세시 흙은 물을 뿌리고 칫솔로 청소

새시 흙을 청소할 때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낡은 칫솔로 긁어내는 것이 좋다. 칫솔을 사용하면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의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다.

◀ 도장에 끼인 인주는 고무줄

로 청소
인주가 끼여 도장의 글씨가 선명하게 찍히지 않을 때는 고무줄을 활용한다. 매듭이 생기도록 묶은 고무줄을 종이 위에 놓고 도장을 누르면 문지르면 도장의 흠에 쌓인 인주와 먼지가 깨끗하게 닦인다.

◀ 가루를 흘렸을 때는 접착 테이프로 제거

마루나 카펫에 밀가루나 설탕을 흘렸을 때, 젖은 걸레로 닦으면 바닥이 끈적거린다. 청소기를 개네기가 번거로운 때는 점접착 테이프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 카펫에 붙은 끈은 얼음으로 제거

카펫이나 소파에 끈이 붙었을 때는 비닐 봉지에 얼음을 담아서 대고 있으면 끈이 딱딱해지

면서 잘 떨어진다. 한 번에 떨어지지 않을 때는 낡은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다.

◀ 밀가루로 스티커를 완전히 제거

밀가루를 이용하면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다. 손가락에 약간의 밀가루를 묻혀 문지르면 스티커의 접착 성분이 밀가루에 엉겨 붙어 접착력이 점점 약해진다.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면 된다.

◀ 가전제품에 달라 붙은 먼지는 스티킹으로 제거

정전기가 발생하여 먼지가 잘 달라 붙는 가전제품의 청소에는 먼지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스티킹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청소기의 호스처럼 뭉기 어려운 부분도 스티킹을 이용하면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LIG 손해보험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영화에서 불교보기

〈길버트 그레이프〉와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사는 건 다 어렵다”

이번 호부터 불교와 영화를 공통분모로 하는 영화평 쓰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은주 씨는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산불교신문에서 취재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불교영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불교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사상이 알게 모르게 녹아있는 영화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두 종류의 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불교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글쓴이 주

삶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나는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삶이 불행으로부터의 도전이라는 진리 정도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극장〉에 나오는, 갓난아기를 둔 엄마는 어느 날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거지요. 그래도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감사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얻은 것에 고마워하는 거지요. 자신의 귀여운 아기를 하루라도 더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할 지 무덤덤한 나도 눈물 몇 방울 흘렸습니다.

어디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들만 힘들겠습니까? 최진실 씨는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목을 땄을까요?

일체개고 리얼하게 보여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개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지요. 부정적이고 수명적인 냄새가 짙게 나는 이 세계관이 불교 세계관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도 합니다. 괴로움이 바다처럼 끝이 없다는 뜻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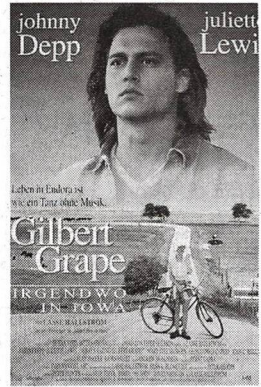
부처님은 불나방이 불 속을 뛰어 드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낭떠러지에 서있는 한 그루 나무에 위태하게 매달린 사람의 처지로 인간의 삶을 관찰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인간이 처한 삶의 조건이라는 거지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찌했어.

다음 영화를 보게 되면 아마도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고해’와 ‘일체개고’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미래

도 없고 희망도 없는 어둡고 긴 터널에 갇힌 주인공의 상황을 통해 삶의 고단함을 잘 표현한 영화들입니다. 〈개 같은 내 인생〉으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라세 할스트롬 감독이 만든 〈길버트 그레이프〉와 토드 솔론즈 감독의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가 바로 그 영화들입니다.

〈길버트 그레이프〉는 피터 헤지스라는 작가가 쓴 장편소설 〈무엇이 길버트 그레이프를 괴롭히는가?〉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 무엇이 가족을 의미합니다. 삶의 부조리함을 끔찍한 가족이라는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유명한 독립 영화제인 선댄스 영화제 1996년도 대상작인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의 감독은 이 작품을 청소년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아이들이 겪는



삶의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먼저 〈길버트 그레이프〉의 길버트(조니 뎀)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 청년이 처한 상황은 위구밍에는 절대로 별들 날이 없다입니다. 아버지가 자살한 후 어머니는 몸무게가 무려 225킬로그램이나 불어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만도 버거운데 남동생은 한 술 더 떠 자폐아이기까지 합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자폐아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럼 길버트의 집이 무겁다

고도 않겠지요. 동생 어니(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말쑥꾸러기입니다. 이 아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어느 날은 소방대원까지 출동하게 만든 마을의 골칫거리입니다. 이밖에 노처녀 누나와 불만만 많은 사춘기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길버트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표현 보다는 길버트의 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한편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의 주인공 돈 위너의 삶 또한 길버트 못지않습니다. 돈 위너는 중학교 1학년 왕따 소녀입니다. ‘전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땅히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시만 하면 좋을 텐데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무리들까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애는 돈 위너가 자기 남자친구를 고지질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X를 싸라고 위협하고, 또 어떤 남학생은 강간하겠다고 협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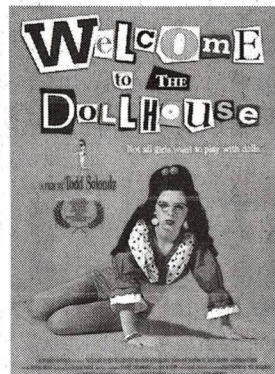
그러나 돈 위너에게는 집도 결코 평화를 느낄만한 곳이 아닙니다. 엄마는 계모라도 되는 것처럼 돈 위너를 차별합니다. 똑똑한 오빠와 애교 많고 귀여운 여동생만 좋아해서 노골적으로 돈 위너를 왕따 시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자폐아라는 놀림을 받는 수모까지 당합니다. 이렇게 돈 위너의 중학교 1학년은 끔찍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이 고통이 특별한 시기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왜 ‘일체개고’라고 했겠습니까? 삶이 지속되는 한 고통도 지속된다는 걸 이 영화들은 보여줍니다.

돈 위너는 미래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 고등학교는 어때?”

오빠의 대답이 인생에 대한 명료한 답입니다.

“지금하고 똑 같아.” 얼마나 끔찍한 대답입니까? 지금하고 똑같다니. 길버트도 돈 위너도 지금하고 똑 같은 미래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 그런 미래를 기



씩을 짊어 버립니다.

아이들의 고통 생생히 묘사

〈길버트 그레이프〉를 봐도 오빠의 답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버트는 언제나 집을 떠나서 좀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두 여동생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면서 가족이 해체된 거지요. 그래서 길버트는 혼자 그가 원하던 곳으로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집이 내려지면 그 하전함을 건지지 못하더라도 한다는 ‘웃’ 길버트는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을 떠나면서 혹 하나를 달고 갑니다. 골칫덩이 동생 어니를 데리고 떠나는 거지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길버트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걸. 머무는 공간만 바뀌었을 뿐 그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길버트 그레이프〉의 길버트와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의 돈 위너를 보면 ‘일체개고’와 ‘고해’ 세계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힌 이들의 삶이 고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고해겠습니까? 우리라고 이들과 다를까요? 이들의 삶이 어찌하면 우리가 처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술이라도 걸린 것처럼 ‘미래는 나아질 거야’라는 주문을 외면서 어리석게도 마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돈 위너와 길버트는 속삭입니다. “미래도 똑 같아” 하고요.

-김은주(오마이 뉴스 시민기자)

세상사는 이야기

일본과 한류(韓流)

오늘 하루 참 바쁘게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우리 부부는 일본인 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갔다. 그들은 남편이 경영 하고 있는 회사의 일본 사업 파트너인데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한국에 관광차 왔다고 한다. 특히 그 부인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류 팬이라고 한다.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친근한 모습이다.

남편이 일본에 머무는 때 각별히 친절하게 해 주었고 오랫동안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나도 같이 가게 되었다. 이런 일에 서툰 나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특히 일본말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처지이다. 그렇다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우리 종단에서 주최한 ‘세계 재가 불자대회’에 참가 했을 때의 일이 생각 난다. 그때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포럼에도 참가하고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2박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토론에도 참가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었다.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그들이 발표할 때 아는 단어가 나오면 대강 문장을 맞추어 고개도 끄덕이며 웃기도 하고 손뼉도 치며 그렇게 지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한편으로 언어 소통에 이렇게 어려움을 느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나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 간단한 회화 공부 책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것은 생각뿐 서서히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같은 일이 생겼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난 웃으며 우리말로 인사를 했다. 물론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말로 인사를 했다. 아무 어색함도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다. 걱정은 그대로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 나라의 말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난 스스로를 변명 하며 당당히 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호텔의 식당에서 우리 음식을 먹었다. 조금 매운데도 참 맛있게 먹는다. 역시 우리 한식은 세계인의 음식이 될 날이 멀지 않

은 것 같다. 아니, 이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들은 이후 점심때에 먹었던 한국음식도 너무 맛있다면서 일일이 카메라에 담고 재미있는 표현의 한국 말이 있으면 수첩에 꼼꼼하게 메모 하고 있다. 한국 음식은 다 맛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혹시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부인은 친구들과 한국에 몇 번 왔었다고 한다. 속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만큼 한국말과 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 음식과 한국의 다른 모습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한류의 모습이다.

이들에 비하면 난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일본에 대해 알고 노력 하지도 않고 일본이라면 공연히 미운 생각이 든다. 또 그들과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마음 속에 늘 자리잡고 있어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는 꼭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가슴 밑바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3박 4일 일정이라고 한다. 오는 날과 가는 날을 빼면 이틀간의 시간이다. 첫날인 오늘은 수원 화성에 가고 둘째 날은 창덕궁 비원에 가기로 했다. 물론 남대문 시장에서의 쇼핑도 중요한 코스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관광지에 대해 잘 알고 온 것이다.

수원 화성에서는 마침 문화해설사 분이 계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주 열심히 듣고 때로는 질문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진지하고 적극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엔 일본인들 하면 그들은 속을 알 수 없고 친절도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라고 생각 했던 내 생각이 오늘 이들을 보고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사제보 충지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담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바라밀 공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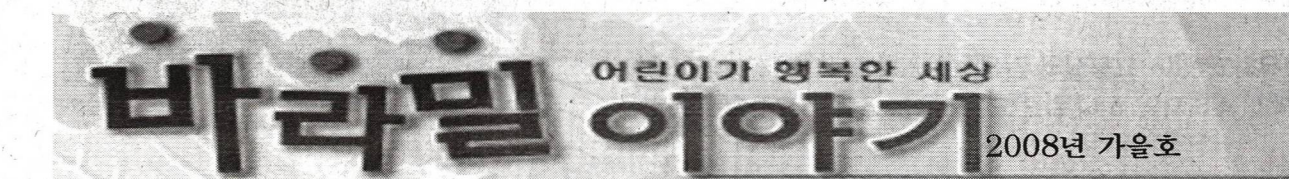
happylog.naver.com/baramildo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정각사 內

☎ 051)552-0705

여러분도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이제 나도 중학생

문진술(초6)

8월 중순부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수업, 수학만 하지는 것이지만, 이 한과목도 나에게 너무나 벅했다. 그리고 6학년 수준에서 중 1 수준으로 올라가는 차이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용을 알아야 중학교를 올라갈 수

있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되자 선생님이 한번 더 가르쳐 주셨다. (중략) 중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딩으로 계속 남고 싶어진다. 아동센터에서 따로 공부시켜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이용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30명)
- 이용시간 : 학기중 오후 2시 → 6시(점심 제공)
방학중 오전 10시 → 6시(저녁제공)
- 이용방법 : 방문 - 입소상담 - 통보 - 이용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3시30분	미술	영어(저)	수학(저)	영어(저)	요가
4시30분		원어민(고)	오카리나(고)	원어민(고)	
4시30분	수업	영고(고)	수학(고)	영고(고)	국악
5시30분		원어민(저)	오카리나(저)	원어민(저)	

||진언행자를 찾아서|| 서울 총지사 김성민 보살

“심성(心性) 닦으면 복은 깃들게 마련이지요”

법 부 중생들은 몸 한 번 움직이고 말 한 번 할 때마다 모두 업에 떨어지지 않음이 없다 한다. 한 평생을 살면서 구업(口業)만큼 쉽게 짓고 그만큼 많이 짓게 되는 업이 또 있을까. 그래서 현자들은 “입은 재앙의 문이고, 입 속에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들어 있다”며 입과 말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가르친다.

해인사 어느 학인 스님의 일화다. 해인사에서는 한 해 두 차례 안거 해제를 앞두고 7일 7야 용맹정진을 한다. 이례를 꼬박 새우며 낮에는 가행정진을 하고 밤에는 수마와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용맹심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묵언(默言)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토록 고통스런 지경을 당하여 기력이 쇠진해서도 대중들과 공양을 할 때면 입이 달짝달짝 거러다닌다. 학인 스님은 어느 순간 몸서리가 쳐질만큼 정신이 퍼뜩 들었다 한다. 오랜 습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내뿜어지는 공허한 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짓는 무수한 허물과 과보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학인 스님은 부연해서 말한다. 지금껏 말을 안해 후회한 일 보다 해서 후회되는 일이 더 많았었다고.

새해불공 병어리

십수년 전 새해불공때가 되면 총지사에 병어리가 하나 왔다. 병어리는 일주일 내내 절에서 기식을 하며 정진

에만 몰두하는데 사람들은 처음엔 꼭 병어리인 줄만 알았다 한다.

김성민(67. 불명·월광인) 보살. 보살은 십여년간 총지중 본산적인 총지사 회장을 맡아 대소사 일을 관장했다. 회장자리 같이 일 많고 머리 무거운 일에 후임자는 잘 없었다. 본의 아니게 강산이 변하는 동안까지 회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평소 바론 소리 딱딱해대는 성품이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김성민 보살은 법회 시간에는 맨 앞 줄에서 정진한다. 스승님 법문 중에도 불쑥불쑥 한 마디씩 내뉜다. 대개 사리에 꼭 들어 맞고, 해인에서 우려 나오는 말들이다.

회장으로 있으면서 갖가지 일들을 치르다 보면 구설수도 생기는 것이 상례지만, 당시에 보살은 웬지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장애로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 지곤했다.

“한 오년만 하려고 했었죠. 구업을 다스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불공 일주일간 묵언정진을 하기로 작심했죠.”

그렇게 시작한 새해 묵언정진은 한 해를 더해 여섯해 동안 지속됐다.

보살의 진언수행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92. 최공자)를 따라 자성 학교에 다니면서 시작됐다. 포항 보정 심인당 교도였던 어머니는 주야육시 향송은 물론 밀교장경, 종전 등을 경

책표지가 다 닳도록 수지독송했다. 뿐만 아니라 다같이 묵언 7정진을 했다고 하니 어쩌면 김성민 보살의 신앙 원류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유난히 많았던 만팔이 스무살만이라도 살기를 소원했다. 딸은 무탈하게 성장했고 5남매의 맏이로서 나머지 동생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해냈다. 도정공장을 경영한 아버지 덕택으로 형제들 모두 일찍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자연 만팔인 보살이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다.

총지사 대표 보살

김성민 보살은 오래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랬듯 서원당에서 동생들의 창성을 소원했다. 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면 7정진불공을 올렸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는지 자신은 소위 일류여대를 다녔고 동생들은 미국유학도 가고 대학교수도 되었다.



구업(口業) 소멸 위해 새해 7일 묵언정진 “서원당 오는 게 제일 재미난 취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성민 보살이 요즘 스승님들께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 교도들에게 좀 더 세세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예전 복지화 스승의 일화다. 보살이 당시 영험했다는 어느 현교절에 가겠다고 하자 밤낮으로 쫓아 다니며 만류했다고 한다. 어느 날인가는 집으로 들어 가려는데 스승님이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 오더라. 거기서 해가 저물도록 기다린 것이다.

“초창기 스승님들께선 그런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교화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스승님들께서는 교도들을 어머니가 자식 품듯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든, 아흔이 돼도 스승님의 따뜻한 말씀, 전화 한 통에 기뻐합니다.”

보살은 요즘 컴퓨터 온라인게임을 배워 취미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서원당엘 나와 정진하는 것이 제

일 재미있다고 말한다.

불법(佛法) 만나 감사

“서원당은 심성을 닦는 곳이에요. 복을 비는 곳이 아니지요. 낚시터를 닦으면 광채가 나듯 우리네 심성도 자주 닦다 보면 광채가 나고 그때부터는 좋은 복이 하나 하나 깃들게 되는 법입니다. 제일로 재미난 취미가 되는 거죠”

김성민 보살은 묵언정진을 여러 해 하고나서 말도 전보다는 유하게 변하고 마음도 주변도 편안해 졌다고 한다.

“그저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내 심성을 요정도 쓸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부처님 못 만나고 불공 안 했으면 아주 몸살 사람이 됐을 지도 모릅니다.”

서원당에 앉아 있는 보살을 보면 그

지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아마도 보살은 입으로 짓는 네가지 업,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는 물론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안해도 될 말 같은 구업마저도 잘 조어(調御)해서 '내외에 다툼이 없는 경지'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 소식 한 것처럼도 보이는, 특특 던지는 말은 그래도 여전하지만.

윤우채 기자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중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회장 김동운
(관성사 교도)

고급인쇄 인쇄 대국전 5색 · 4색 · 2색 / 광고기획 / 출판 / 카달로그 / 브로슈어 / 전단 / 명함 / 사보편집

판촉물 일체

최신형 인쇄기로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비현상

(주)윤일문화는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고객의 의도를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 고객과 소비자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윤일문화가 하는 일이자 (주)윤일문화만의 전략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등의 회사보다 앞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윤일문화는 세계 최고의 인쇄기인 최신형 하이메베르크 5색기와 4색기를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인쇄물을 기획에서 납품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를 하나로 만드는 전략,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칩니다.

(주)윤일문화는 전국판촉물제조협회와 업무제휴하여 고품격의 판촉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신형인쇄기-하이메베르크5색기

ONE-STOP SYSTEM

인쇄와 판촉물의 모든 것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el. 02-498-6161T(代) Fax. 02-469-9017



주식회사 윤일문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7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dongw(ID), 4567(PW)

고객

기

인

납

후

A/S